

노인의 의·식·주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한 이상적 모델개발 연구*

—양로원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a Retirement Home Model with Emphasis on Clothing, Nutrition, Housing,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주생활학과 교 수 윤 복 자
의생활학과 교 수 강 혜 원
의생활학과 조교수 조 길 수
식생활학과 교 수 손 경 희
식생활학과 부교수 콧 동 경
주생활학과 교 수 지 순
아동학과 교 수 김 경 희

*Research Institute of Home Science,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Professor; **Bokcha Y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Assistant Professor; **Gilsoo Cho**

Dept. of Food & Nutrition

Professor; **Kyunghee Sohn**

Dept. of Food & Nutrition

Associate Professor; **Tongkyung Kwak**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Professor; **Soon Chi**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Professor; **Kyunghee Kim**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retirement home model for the elderly in terms of clothing and textiles; nutrition, health, and foodservice; housing and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1)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clothing by comparing the clothing behavior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retirement home and of those living in their own homes with family, 2)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balanced diet and effective foodservice, 3) to develop an ideal life space and facilities, and 4) to asses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Questionnaires, observation, experimental method, and survey of literature were used for the study.

Clothing behavior showed that the elderly were much concerned about clothing, and they preferred comfortable as well as fashionable designs. The elderly in the retirement homes complained of a lack of quantity and variety in clothing. They preferred natural fiber rather than blended fabrics. Flame resistance, thermal insulation, and flexibility of textile fabrics were found to be prime considerations in manufacturing and selecting clothing materials for the elderly.

The health status of the surveyed elderly was generally good, but some poor eating habits were observed. Dietary nutrients intakes were generally sufficient, but several nutrients intakes were insufficient. The level of equipment in the kitchens of the institutions was low. Furthermore, the employment rate of dietitians in institutional settings was extremely low. This resulted in a lack of systematic foodservice management.

Residents in the institution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present life space and facilities but this was mainly because of abandonment, adaptation, and past experience. Optimal allocation of residents per bedroom and an adequate design for storage, bathroom, utility room, and dining room were recommended.

The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ized and home-based elderly revealed that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elderly living at home was more stable than those living in an institution. The emotional state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institution was characterized by loneliness; they did not have clos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r future plan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elderly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 서 론

현대의학 및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70년대 초반의 3.3%

에서 점차 증가하여 85년 이후에는 4.3%, 1990년대에는 4.7%, 그리고 2,000년대에는 6.3%로 기대되어 더욱 급격한 상승이 예상(윤종주, 1989)되고있다.

한편, 가족구조 및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식 저하등으로 인한 노인의 부양 및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들의 자식과의 동거비율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인들끼리 독립세대를 구성·생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차대전 후 의학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1970년 이후에는 노인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였으며, 노인부양문제를 노인의 경제적 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정책적·사회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부양의 형태는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될수록 사적부양기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부양의 대부분이 가족중심의 사적부양에 의존하고 있어, 전통적 부모부양관의 변화추세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박재간, 1981).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되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1980년에 48개이던 시설이 1988년에는 76개소로서 5,648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으며, 입소희망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차홍봉, 1988).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원화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80년대 이르러 노화과정과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및 노인 심리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식·주 및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생활 : 노인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노년층 여성은 젊을때 보다 현재 의복을 더 중요시하며(유경숙, 1984),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Hurlock, 1978),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할 때 다른 사람의 태도가 좋아진다고 느끼며, 또한 외출복으로는 한복, 평상복으로는 양복을 착용한다(고애란, 박명기, 198)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국의 노년층 여성은 의복을 직접 구입하고 싶어하며 의복을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Simpson & Littrell, 198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로는 옷보다 돈을 더 받고 싶어했고, 의복선물로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한복(유경숙, 1984)이었

다. 한편 미국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노인의 의복과 신체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Moran, 1976; Phipp, 1977; Pattersor, 1983~1984; Horridage, 1978~1973)과 의복 심리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Richard, 1981; Eblig & Rosencrang, 1961; Maber & Sontag, 1986; Park, 1978)을 찾아볼 수 있다.

식생활 : 국내외에서 노년기 영양과 건강상태, 식사에 대한 가치관, 영양지식, 영양섭취실태에 관하여 양로원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성미, 1978; 김혜경: 1989; 문수재, 1982; 서순규, 1968, 1971; 서정숙, 1982; 손숙미, 1973; 이기열, 1980; 천종희, 1988; 한국인구보건원, 1989; 김선희, 1977; 안창수, 1987; 고양숙, 1981; 이영근, 1981; 강남이, 1986; 조영숙, 1986; Tayler, 1963; Sims, 1976; Shijuko, 1982; Robert, 1981; Pelcovitis, 1972; Pyke, 1947; Phyllis, 1977).

주생활 : 양로원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시설과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문제제기이며,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영배·최영배(1979)는 전남지구의 양로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시설특성과 거주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그리고 한국인구 보건연구원(1983)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양로원의 시설·운영과 거주노인들의 생활의식 및 태도, 운영자에 대한 일반사항등을 조사하였다. 금요섭(1983)은 침실을 중심으로 거주노인들의 공간사용을, 우미경(1988)은 여가공간에서의 노인들의 시간 및 공간에 따른 행위유형을 관찰을 통해 연구하였다. 한편 지순·윤복자등(1986)은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노후생활 주택단지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들 실시하였고, 박태환(1983), 서의택·박태환(1984, 1985)등은 문헌을 통해 서구 여러나라의 노인을 위한 집합주거 및 노인홈에 대해 분포현황과 시설·공간상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노인심리 : 노인기는 노화와 더불어 감각과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snik et al., 1988; Corso, 1971, 1977). 감각과 지각, 인지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신체 및 건강상태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며, 시간전망이 변화되어 정신생활에 있어서 내성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owenthal &

Chiribaga, 1973; Jarbik, 1976). 뿐만 아니라 의존성도 증가하여 노인들은 가족관계에서 감정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Bengtson & Blacks, 1973),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려고 애쓴다(Lowenthal & Haven, 1968).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자신의 가족구성원들을 보다 가깝고 의미있게 지각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윤진, 1980; 윤진, 조석미, 1980).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이들을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며, 양로원노인들과 일반노인들을 비교한 연구 내지 양로원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목적 : 양로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한 이상적 모델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분야별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의생활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의복행동의 네 측면을 밝힌다.
2. 노인의 의복착용실태 및 의복관리실태를 파악한다.
3. 노인에게 적절한 의복소재를 선호도와 불성간의 관련성으로부터 규명한다.
4.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복의 문제점 파악과 의생활 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식생활

1. 양로원 및 일반노인들의 건강상태, 식습관,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비교연구하여 합리적인 식생활 지침을 제시한다.
2. 양로원의 급식운영현황, 급식시설 구비실태 및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양로원 급식의 질적개선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주생활

1. 기존 양로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실태 및 노인의 생활의식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2. 기존 양로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운영체계를 조사한다.
3. 쾌적한 양로원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간구성 방법과 시설에 대한 대안을 파악하여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한다.

노인심리

1. 이론적으로 양로원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인지 및 감각능력, 기억력변화, 대인관계의 특징, 미래계획 및 미래전망, 죽음에 대한 태도)으로부터 구조적 특성을 추출해낸다.

2. 실제적으로 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양로원 모델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양로원노인의 의·식·주생활 및 노인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실측 및 관찰을 통한 현장조사, 실험연구 그리고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대상 양로원과 분야별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양로원과 조사대상자 선정

양로원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와 근교에 위치한 6개 양로원을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상태, 운영자의 협조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원 회의를 거쳐 본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서울시립 양로원을 선정하였고(<표 1>), 각 분야에서는 양로원과 일반노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을 추가 선정하였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양로원노인과 서울의 노인학교, 노인정노인을, 식생활 분야에서는 서울시 소재 5개 양로원노인과 노인대학노인 그리고 노인심리분야에서는 노인대학 노인을 각각 선정하였다.

2. 연구진행 및 절차

1) 의생활분야

(1) 조사연구

측정도구 : 의복행동, 의생활실태 및 의복소재 선호도 및 배경변인 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의복행동 4측면, 의생활실태 5측면, 의복소재선호도는 직물 8종류, 편성물(조직형태, 실태)에 대한 선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형식은

< 표 1 > 양로원 선정을 위한 조사표

내용	양로원	청운양로원	천사종합복지원	청암양로원	시립양로원	해명양로원	서울시립요양원
위 치	종로구 구기동	강서구 발산동	강동구 마천동	강동구 명일동	강동구 시흥동	구로구 시흥동	도봉구 상계동
설립년도(시설)	1927(1956)	1978(1977)	1979(1978)	1969(1982)	1977(1982)	1983(1929)	
운영주관	정부(80%) 기부(20%)	정부 지원	정부 지원	서울시에서 수녀회에 위탁	불교(도신사) 후원	정부(70%) 단체(20%) 종교	
직원수	7명	6명	8명	20명	11명	26명	
수용노인 선정기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공통으로 함						
수용인원	96명	110명	182명	100명	60명	30/30	
남 / 여	0/96	0/110	102/80	43/57	30/30		
연령 분포	65~98세	65~100세	65~92세	66~91세	65~90세		
평균 연령	80세	80세	75세	77세	77세		
건물 연면적	408평	512평	818평	360평	353평		
난방 방식	중앙난방/온돌	중앙난방/온돌	중앙난방/온돌	중앙난방/온돌	중앙난방/온돌	중앙난방/스팀	
온수 공급	없 음	있 음	있 음	있 음	있 음	있 음	
침실 면적	4~5평	4~8평	13평	6평	6평	6평	
침실 사용 인원	5~6명	4~10명	8명	남 3명/여 3명	남 3명/여 3명	6~7명	
수납 방식	서랍장/그 위에 침구	불박이장	불박이장	불박이장	불박이장	불박이장	
화장실 수	1개소/층당	1개소/층당	1개소/층당	각방마다(양변기, 샤워, 세면)	합머니/방당, 할아버지/층당	3개소(환자이므로 사용빈도 적음)	
목욕시설	공동탕(겨울엔 안 씀)	공동탕	공동탕	각방에 샤워기/공동탕	공동탕	공동탕	
목욕방식	큰욕조, 샤워기	물 퍼서 씀	물 퍼서 씀, 샤워기	물 퍼서 씀, 샤워기	물 퍼서 씀, 샤워기	물 퍼서 씀, 샤워기	
식당면적	28평	46평	30평	66평	30평	40평	
배식방법	반찬 차려놓고 먹, 자율배식	반찬 차려놓고 먹, 자율배식	반찬 차려놓고 먹, 자율배식	반찬 차려놓고 먹, 자율배식	자율배식	직원배식	
배식횟수	3식	3식	3식	3식+어쩌다 간식	3식+어쩌다 간식	3식	
기타 공동공간	없 음	휴게실, 예배실, 물리치료실	강당	다용도실(TV, 재봉틀, 바둑), 종교실(불교, 천주교), 옥외정자	법당, 오락실, 배드민턴장, 체스밭	오락실, 물리치료실, 옥외정자, 수영장(실외 시용안함)	

Likert형, 선다형, 예·아니오형 및 자유응답식 등이었다.

조사대상 : 서울과 경기도의 양로원노인 125명(남 54, 여 71)과 서울의 노인학교 및 노인정 노인 158명(남 72, 여 86) 등 총 283명이며 그 연령분포는 <표 2>와 같다.

연구절차 :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에 의하여 1988년 6~7월에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 분석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이 사용되었다.

(2) 실험연구

시료 : 의복소재 선호도와 직물의 물성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 시료 및 특성은 <표 3>과 같다.

물성실험 : 유연성 실험은 KS K 0539 cantilever

Bending Method에 준하여 강연도플, 보온성 실험은 KS K 0466 평판형 항온 시험법에 준하여 시료의 열차단력(clo.)을, 방염성 실험은 KS K 0585 Vertical strip Method에 준하여 연소시 탄화거리를 측정하였다.

2) 식생활 분야

(1) 노인의 건강상태 및 영양섭취 실태 조사

노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영양상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립 양로원 노인 30명과 노인대학에 나오는 일반노인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서정숙(1982), 손숙미(1979), 이기열(1980), 임현숙(1981), 문수재(1982)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재구성하여 1988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개인별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χ^2 -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양로원의 급식관리 및 시설 실태조사

서울시 소재 5개 양로원을 대상으로 1988년 6월 2일~6월 14일에 예비조사를, 7월 2일~7월 7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급식관리 실태는 김남희(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보완하여 개발한 조사지를 가지고 급식관리 책임자와 개별면담 하였다. 주방의 기기 및 시설의 점검표는 박경해(1984)의 연구에서 사용한 목록을 보완하여 관찰을 통해 기재하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연령	양로원		일반	
	n(명)	백분율(%)	n(명)	백분율(%)
65~69세	13	10.4	22	13.9
70~74세	39	31.2	56	35.5
75~79세	44	35.2	40	25.3
80~84세	25	20.0	31	19.6
85세 이상	4	3.2	9	5.7
합계	125	100.0	158	100.0

<표 3> 시료의 특성

시료		직물밀도 (end×picks/inch)	직물무게 ^{a)} (g/m ²)	직물두께 ^{b)} (mm)	직물조직/제조방법
직물	면 100%	72×144	123	0.214	평직
	마 100%	55×65	129	0.258	평직
	면/폴리에스터 65/35	88×64	77	0.182	평직
	모 100%	108×75	257	0.486	능직(3/1)
	모/아크릴 30/70	75×78	235	0.402	능직(2/2)
투습 발수 소재	나일론/폴리에스터 18/82(아이탁)	136×88	103	0.158	고밀도
	나일론 100% (하이포라)	114×96	99	0.126	습식코팅
	나일론 100% (코어텍스)	94×97	104	0.200	라미네이트

a) KS K 0514 직물의 무게측정 방법

b)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3) 주생활 분야

(1) 연구내용 및 방법

양로원의 생활공간, 생활여건 공간 등에 대한 실태 및 거주 노인의 생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방법과 실측 및 관찰조사 방법을 사용 하였다.

(2) 조사도구의 작성

면접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서울시립양로원 거주 노인의 각 공간 사용현황 및 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공간별 사용방법, 만족도, 희망사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연구원 2인과 주생활학 전공자 4인의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문항을 작성하였다.

(3) 본조사

본조사는 1988년 7월 11일에 훈련된 면접자에 의해 10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원 제성복지원(유당마을)과 청주 심심원을 현지답사 하여 서울 시립양로원의 조사결과를 해석하고 본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4) 노인심리 분야

(1)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위한 조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60세부터 80세에 이르는 양로원 노인 16명과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는 일반노인 43명으로 모두 57명이었다. 노인심리 파악을 위한 도구는 구조적 면담으로서 양로원 노인용(42문항), 일반노인용(36문항)으로 나누어 질문지로 작성되었다. 면담내용은 인구론적 변인, 건강문제, 취미 및 여가, 기분, 대인관계, 지각상태, 미래계획, 미래전망,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양로원 생활실태(양로원 노인에 한함)로 구성되었다. 1차년도에는 1988년 5월에 2명의 면담자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6·7월에 걸쳐 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차년도(1989)에는 자료분석을 통한 모델추출 작업이 수행되었다.

(2) 분석방법 면담내용은 본 연구자와 2명의 면담자가 함께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시켰다. 내용분석에 따른 범주별로 양로원 노인과 일반노인의 반응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의 성격상, 그리고

조사대상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엄격한 통계처리는 생략되었다.

III. 결과 및 논의

1. 의생활 분야

1) 노인의 의복행동

의복중요도 : 전체노인의 77%가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중요시 하였고 4집단간 차이검정은 <표 4>와 같다. 일반여자 노인이 양로원여자노인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 하였다. 의복착용시 중요시하는 측면은 양로원과 비양로원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남자는 '깨끗한 것'·여자는 '입어서 편한것'을 중요시 했다.

의복만족도 : 전체의 65%가 의복에 만족하였으며 4 집단간 차이검정은 <표 5>와 같다. 양로원 여자노인이 양로원 및 일반 남자노인보다 의복만족도가 낮았다. 의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로원 노인은 남녀모두 가짓수의 부족, 종류의 다양하지 못함, 새 옷이 없음의 순이었으나 일반노인은 모양·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음, 새 옷이 없음, 가짓수의 부족의 순으로 나타나 양로원노인의 의복부족이 중요한 불만 이유로 나타났다. 외출할때 입을만한 옷이 없어 속상할때가 많은 노인은 남자 4%, 여자 18%였다.

<표 4> 의복중요도 차이 검정

		n=283			
집단		Mean	S.D.	F-ratio	Duncan
남자	양로원	3.7	0.7	6.2887***	A
	일반	3.9	0.6		A B
여자	양로원	3.6	0.7		A
	일반	4.0	0.6		B

***p < .001

<표 5> 의복만족도 차이 검정

		n=283			
집단		Mean	S.D.	F-ratio	Duncan
남자	양로원	3.7	1.0	3.7733*	A
	일반	3.8	0.8		A
여자	양로원	3.3	1.0		B
	일반	3.5	1.0		A B

*p < .05

의복관심도 : 전체노인의 53%가 의복에 관심이 있었으며, 4집단간 차이검정은 <표 6>과 같다. 양로원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의복관심이 적었다.

입고싶은 의복스타일은 양로원노인은 수수하고 점잖은 옷, 노인들이 많이 입는 옷이었으나 일반노인은 대다수가 아무옷이나 상관없다고 하였으며 전체노인들에게서 새로 유행하는 신식옷은 세번째로 선호하는 것이었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도 : 대인관계 또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의복의 의존도는 양로원·일반 노인 모두 낮아 의복에서 받는 느낌이나 분위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 노인의 의복착용 및 의복관리 실태

의복착용 실태 :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의복종류에서 여자노인은 여름에는 블라우스와 고무줄밴드 스커트, 겨울에는 스웨터와 몸빼, 고무줄 밴드 스커트였고, 한편 남자노인은 여름에는 남방과 양복바지, 겨울에는 잠바와 양복바지였다. 노인들은 89%가 외출시 의복을 바꿔입었으며 그 이유로는 4집단 모두 '남이 훑볼까봐'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잘차려 입어야 기분이 좋으니까'의 순으로 나타나, 타인위주 및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을 다같이 중요시했다. 외출시는 한복보다 양복(양장)을 입는것을 더 선호하며 이는 1981년 고애란등의 연구에서의 한복선호와 비교할때 변화된 취향이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으나 입지않는 옷은 4집단 모두에서 유행이 지난것, 색깔·모양이 마음에 안드는 것, 잘 맞지 않는것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의복에서도 유행과 심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의복구입은 노인의 67%가 직접구입하며 구매장소는 시장(39%)이 가장 높았다. 선물로는 옷보다는 돈을 선호하나 의복선물인 경우는 양복(양장)을 한복보다 선호하며 '유경숙'의 연구에서 한복선호와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호하는 여밈방법은 상의(上衣)에서 여자는 단추, 남자는 단추와 지퍼이며, 여밈에 Velcro 사용을 전혀 선호하지 않았다. 한편 하의(下衣)에서 양로원 여자노인은 고무줄밴드, 일반 여자노인은 지퍼를 선호하였다.

의복관리 실태 : 전반적으로 의복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으며 일반노인이 양로원노인보다 의복관

<표 6> 의복관심도 차이 검정

n=283

집단		Mean	S.D.	F-ratio	Duncan
남자	양로원	2.8	1.3	6.047***	A
	일반	3.4	1.3		
여자	양로원	3.0	1.4		A
	일반	3.6	1.2		

***p<.001

<표 7> '손수 빨래 하시기가 귀찮거나 힘드시지 않습니까'에 대한 응답 분포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n(명)	백분율(%)	n(명)	백분율(%)
전혀 귀찮지 않다	26	20.8	12	7.6
귀찮지 않다	49	39.2	23	14.6
그저 그렇다	10	8.0	9	5.7
귀찮은 편이다	22	17.6	23	14.6
아주 귀찮다	12	9.6	6	3.8
무응답	6	4.8	85	53.8
합 계	125	100.0	158	100.0

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양로원노인 $\bar{X}=3.6$, 일반노인 $\bar{X}=3.8$, $p<0.01$). 전체의 65%가 손수빨래를 하고 있었으며 드라이크리닝은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표 7>에서, 빨래하는것이 귀찮지 않다는 양로원노인 60%, 일반노인 22%였으며 이는 특히 양로원노인은 손수하는 빨래는 귀찮지 않은 소일거리로 보인다.

한편 양로원노인들은 대부분이 기계세탁대신 손빨래를 하고 있고 세제는 비누와 합성세제를 같이 사용하였다. 반면 일반노인은 표백제와 유연제같은 세탁보조제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에게 적절한 의복 소재

(1) 의복 소재의 선호도

노인의 직물 선호도 <표 8>를 살펴보면 여름용 셔츠직물로는 양로원 여자 노인을 제외하고는 양로원 남자노인, 일반 여자노인, 남자노인 모두 마를 가장 선호하였고 겨울용 셔츠직물로는 남녀 양로원, 일반노인 모두 순모를 선호하였다.

노인의 투습발수소재 선호도 <표 9>를 살펴보면 방한복 걸직물용으로 직접 코팅법에 의한 직물

<표 8> 노인의 직물 선호도 : 빈도(백분율)

조사 대상		남자(n=126)		여자(n=157)	
		양로원(n=54)	일 반(n=72)	양로원(n=71)	일 반(n=86)
여름 셔츠용	면	8(15)	5(7)	9(13)	3(4)
	마	28(52)	32(44)	27(38)	48(56)
	면/폴리 에스 터	14(26)	32(44)	33(46)	33(38)
무 응 답		4(7)	3(5)	2(3)	2(2)
겨울 셔츠용	모	33(61)	50(69)	52(73)	61(71)
	모/아크릴	17(32)	17(23)	12(17)	18(21)
무 응 답		4(7)	5(8)	7(10)	7(8)

<표 9> 노인의 투습 발수 소재 선호도 : 빈도(백분율)

조사대상	남자(n=126)		여자(n=157)	
	양로원(n=54)	일 반(n=72)	양로원(n=71)	일 반(n=86)
고밀도 직물	11(20)	16(22)	16(23)	26(30)
습식코딩 직물	22(41)	31(43)	30(42)	39(45)
라미네이트 직물	16(30)	19(27)	19(27)	19(22)
무 응 답	5(9)	6(8)	6(8)	2(3)

(Hipora)을 가장 선호 하였다.

노인의 스웨터용 편성물 선호도 <표 10, 11>을 살펴보면 남녀 양로원, 일반노인 모두 실 형태는 조직 형태(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에 상관없이 퍼지(fuzzy)사를 가장 선호하였고 조직형태로는 실형태(simple, fuzzy)에 상관없이 안뜨기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로써 노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스웨터 편성물 형태는 퍼지사로 안뜨기한 것이었다.

여름용 셔츠직물에 대한 여자노인의 선호도를 제외하고는 남녀 양로원, 일반 노인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2) 의복 소재의 물성

의복 소재의 유연성, 보온성 및 방염성 측정결과는 <표 12>와 같다.

여름용 셔츠직물의 경우 강연도는 마가 가장 큰 값을 보여 뻣뻣하였고 열차단력은 마가 면이나 P/C에 비해 단위 두께당 열차단력(clo/mm) 및 단위 중량당 열차단력(clo/weight)이 낮았으며 방염성은 면,

<표 10> 편성물의 실형태 선호도 : 빈도(백분율)

조사 대상		남자(n=126)		여자(n=157)	
		양로원(n=54)	일 반(n=72)	양로원(n=71)	일 반(n=86)
겉뜨기	simple	10(19)	19(26)	26(36)	28(33)
	loop	6(11)	4(6)	12(17)	10(12)
	fuzzy	31(57)	46(64)	31(44)	45(52)
무 응 답		7(13)	3(4)	2(3)	3(3)
안뜨기	simple	16(30)	19(27)	33(47)	34(40)
	fuzzy	31(57)	47(65)	37(52)	51(59)
무 응 답		7(13)	6(8)	1(1)	1(1)
고무뜨기	simple	18(33)	27(37)	26(37)	12(14)
	fuzzy	29(54)	41(57)	41(58)	71(83)
무 응 답		7(13)	4(6)	4(5)	3(4)

<표 11> 편성물의 조직 형태 선호도 : 빈도(백분율)

실 형태	조직 대상	남자(n=126)		여자(n=157)	
		양로원(n=54)	일 반(n=72)	양로원(n=71)	일 반(n=86)
Simple	겉뜨기	11(20)	15(21)	18(25)	13(15)
	안뜨기	28(52)	40(55)	44(62)	52(61)
	고무뜨기	8(15)	15(21)	8(11)	19(22)
무 응 답		7(13)	2(3)	1(2)	2(2)
Fuzzy	겉뜨기	17(32)	14(19)	15(21)	14(17)
	안뜨기	18(33)	36(50)	28(39)	38(44)
	고무뜨기	12(22)	19(27)	27(38)	32(37)
무 응 답		7(13)	3(4)	1(2)	2(2)

마, P/C의 순으로 천연섬유인 면과 마가 P/C에 비해 좋았다. 겨울용 셔츠직물의 경우 강연도는 순모가 모혼방보다 더 뻣뻣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차단력은 모혼방이 순모에 비해 높은 clo/mm와 clo/weight를 나타냈으나 방염성은 순모가 모혼방에 비해 좋게 나타났다.

방한복용 겉직물의 경우 라미네이팅에 의한 투습발수소재(Gore tex)가 다른 것보다 뻣뻣했으며 열차단력 또한 크게 나타났다.

의복 소재의 선호도와 성능 실험결과를 관련시켜 살펴보면, 노인들의 여름용 셔츠직물로 마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유연직물보다 뻣뻣한 직물이 피부

<표 12> 의복 소재의 성능

물 성	강연도 (g·cm)	열 차단력 (clo)	단위두께당 열 차단력 (clo/mm)	단위중량당 열 차단력 (clo/weight)	탄화거리 (cm)
면	65	0.17	0.7944	0.0014	17.30
마	224	0.07	0.2713	0.0005	21.50
면/폴리에스테르	57	0.11	0.6044	0.0014	28.00
모	152	0.09	0.1852	0.0004	0.60
모/아크릴	112	0.22	0.5472	0.0009	1.45
고밀도 직물	47	0.06	0.3797	0.0006	-
습식코팅 직물	107	0.07	0.5556	0.0007	-
라미네이트 직물	122	0.14	0.7000	0.0013	-

<표 13> 건강지수점수 분류

조사수(비율)

분 류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전 체
	남	녀	전 체	남	녀	전 체	
양 호 (0~5점)	6(40.0)	4(26.7)	10(33.4)	9(60.0)	6(40.0)	15(50.0)	25(41.7)
보 통 (6~10점)	8(53.3)	6(40.0)	14(46.6)	2(13.3)	2(13.3)	4(13.3)	18(30.0)
불 량 (11점 이상)	1 (6.7)	5(33.3)	6(20.0)	4(26.7)	7(46.7)	11(36.7)	17 (28.3)
전 체	15(100)	15(100)	30(100)	15(100)	15(100)	30(100)	60(100)

$$x^2=12.5 \quad p<0.05$$

를 덜 휘감아 공기의 유통이 자유로워 시원하고 열전도도가 우수하며 촉감이 차 여름철 의복 소재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겨울용 셔츠직물로는 모혼방이 순모에 비해 좋은 유연성 및 열차단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순모를 더 선호하였는데 이는 직물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순모가 모혼방 보다 치밀하여 외관이 더 호감이 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방한용 걸직물로는 직접 코팅법에 의한 소재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의복의 보온성은 직물자체의 열차단력보다는 보온재의 두께 및 정지공기층등에 더 영향을 받고 특히 걸직물의 경우 방풍성이 중요하므로 유연한 소재보다는 뻣뻣한 소재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2. 식생활 분야

1) 노인의 건강상태 및 영양섭취 실태

(1) 건강상태

건강지수점수에 따라 건강상태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1.7%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고, 28.3%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양호군과 불량군에서는 일반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보통군에서는 양로원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p<.05$). 김성미(1978)의 연구에서는 양로원노인의 건강상태가 일반노인보다 좋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식생활의 의식구조 및 식습관

식사에 대한 가치관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습관에 의해 식사를 한다는 저차원의 단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만족도는 만족하거나 보통으로 응답하였는데, 양로원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Nanove(1971)의 연구에서 저차원의 욕구가 만족되면 영양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식습관점수를 분류한 결과 <표 14>, 46.7%가 우수집단이었고 양로원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우수양호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영양소섭취 실태

1일 1인당 평균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권장량(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과 비교하였다. <표

15>에서 지방 섭취량은 양군 모두 양호하나, 비타민 A, B₂, C는 권장량의 80% 수준으로 김성미(1978), 천종희(1988) 등의 조사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일부가 낮게 나타났으나, 미국의 중산층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nutrition review (1983)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권장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영양소 섭취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들의 상관성

연령, 건강지수, 식습관 점수, 용돈, 교육수준 등의 변수와 주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표 16>에 요약하였다.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거의 모든 영양소 섭취량도 증가하였다. 건강지수와 영양소 섭취량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건강할수록 영

양소 섭취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양로원의 급식관리 및 시설실태

(1) 일반사항

조사대상 양로원의 급식경영 방식은 모두 직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시보조가 1개소, 정부보조가 4개소로 구분되었고, 1인당 1일 부식비는 시보조의 경우 3,144원, 정부보조의 경우 평균 435원으로 집계 되었다.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양로원의 식당 및 주방의 평균면적과 1회 급식인원에 준한 기준만족비율을 <표 17>에 제시하였는데, 이들 Kotschevar(1985)가 제시한 1회 급식인원에 대한 주방최소면적과 비교시 만

<표 14>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점수 분류

조사수(비율)

식습관점수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전 체
	남	녀	전 체	남	녀	전 체	
우 수(18~24점)	7(46.7)	4(26.7)	11(36.7)	3(20.0)	5(33.3)	8(26.7)	19(31.7)
양 호(13~17점)	5(33.3)	11(73.3)	16(53.3)	9(60.0)	3(20.0)	12(40.0)	28(46.7)
보 통(9~12점)	2(13.3)	-	1(3.3)	3(20.0)	7(46.7)	10(33.3)	12(20.0)
불 량(8점 이하)	1(6.7)	-	1(3.3)	-	-	-	1(1.7)
전 체	15(100)	15(100)	30(100)	15(100)	15(100)	30(100)	60(100)

x²=19.2 p<0.05

<표 15> 각 영양소의 섭취상태

평균±표준편차

영양소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남	녀	남	녀
단백질(g)	70.6±21.3(94.1)	56.1±14.5(86.3)	70.9±20.8(94.5)	62.3±24.0(95.8)
지방(g)	38.7±15.1	34.6±13.5	36.5±16.7	35.6±19.9
당질(g)**	321.2±91.9	241.1±59.3	333.3±77.2	288.5±68.6
Fe(mg)	15.3±4.2(153.0)	12.6±3.2(126.0)	17.0±4.5(170.0)	14.7±4.8(147.0)
Ca(mg)	711.5±162.4(118.5)	601.9±147.4(100.3)	719.6±195.9(119.9)	669.6±228.2(116.6)
Vit A(RE)	585.4±157.9(78.1)	508.9±137.4(67.9)	586.2±181.2(78.1)	552.9±207.2(73.7)
Vit B ₁ (mg)	1.1±0.2(110.0)	0.8±0.1(100.0)	1.1±0.3(110.0)	1.0±0.2(125.0)
Vit B ₂ (mg)	1.1±0.2(91.7)	0.9±0.2(75.0)	1.1±0.3(91.7)	1.0±0.3(83.3)
Niacin**(mg)	19.1±5.3(146.9)	14.4±3.4(110.7)	18.9±3.0(145.4)	17.2±4.3(132.3)
Vit C(mg)	44.2±11.2(80.3)	38.4±12.2(69.8)	50.6±15.3(92.0)	47.7±16.4(86.7)
열량*(Kcal)	1916.5±463.2(95.8)	1501.4±331.3(93.8)	1945.7±384.5(97.3)	1724.2±456.1(107.7)

()% of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p<0.05

**p<0.01

<표 16> 영양소 섭취량과 기타 제요인과의 상관관계

영양소	연령	교육수준	한달용돈	사별기간	흡연량	음주량	식습관점수	건강지수
열량	N.S	N.S	N.S	N.S	-0.3080*	N.S	0.3865***	-0.4089***
단백질	N.S	N.S	N.S	N.S	N.S	N.S	0.5349***	-0.3670***
지방	N.S	N.S	N.S	N.S	N.S	N.S	0.6166***	-0.2909*
당질	N.S	N.S	N.S	N.S	-0.4323*	N.S	N.S	-0.3270**
철분	N.S	N.S	N.S	N.S	N.S	N.S	0.4903***	-0.3158**
칼슘	N.S	N.S	N.S	N.S	N.S	N.S	0.5111***	-0.2787*
비타민 A	N.S	N.S	N.S	N.S	N.S	N.S	0.5381***	-0.2539*
비타민 B ₁	N.S	N.S	N.S	N.S	N.S	N.S	0.2867*	-0.2938*
비타민 B ₂	N.S	N.S	N.S	N.S	N.S	N.S	0.5172***	-0.2670*
나이아신	N.S	N.S	N.S	N.S	-0.3036*	N.S	0.2897*	-0.3230**
비타민 C	N.S	N.S	N.S	N.S	N.S	N.S	0.3293**	N.S

N.S. = Not Significant

*p<0.05 **p<0.01 ***p<0.001

<표 17> 양로원 급식시설의 면적 평가

면적	구분	재정지원유형	
		시보조 (n ^a =1)	국가보조 (n=4)
주방면적	평가		
	mean ± S.D. ^b (평균=3.3058 m ²)	20.0	13.0 ± 2.4
식당면적	평가		
	mean ± S.D. (평균=3.3058 m ²)	64.0	37.3 ± 8.4
주방면적	기준만족 비율 ^c (%)	71.7	91.5 ± 17.2
	기준만족 비율 ^d (%)	75.8	87.4 ± 19.7

a : 양로원 수

b : 평균 + 표준편차

c : 주방면적의 기준만족 비율 = 식수 × 0.465 m²

d : 식당면적의 기준만족 비율 = 주방면적 기준 × 3

족비율은 70~90% 정도의 수준이었다. 양로원별 급식종사자 수의 분포를 <표 18>에 제시하였는데, 영양사가 배치된 양로원은 시보조양로원 1개소 뿐으로, 현행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사회복지 시설내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급식관리

급식제분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표류의 사용율을 <표 19>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장표

<표 18> 양로원의 급식종사자 수의 분포

종업원 구분	영양사	조리사	보조 조리원	사무원	비상근 종업원	기타
시보조 양로원	1 ^a	1	3	0	2	0
국가보조 양로원	0	0	1.3 ± 0.4	0	1.8 ± 1.3	0

a : 종업원 수

<표 19> 양로원 급식시설에서의 장표류 사용율

장 표 류	사용율(%)
식단 관리	30.0
영양 관리	0.0
구매 관리	30.0
저장 및 재고 관리	46.7
생산 관리	0.0
작업 및 노무 관리	0.0
위생 관리	0.0
재무 관리	33.3

류의 사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집계되었으며, 식품구매와 관련하여 식품명세서, 구매요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검수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60%로 집계되어 식품구매 및 저장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음식생산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으로, 음식의 품질표

준, 원가통제등의 효과적인 급식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잔식의 처리방법은 냉장하였다가 다음날 재급식하는 경우가 60%로 집계되어 보관과정의 온도 및 시간의 철저한 통제가 요구되었다.

식기세척방법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60%이었다. 방법 및 대상은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주방의 기기 및 시설

기기 및 설비의 구성정도를 각 생산 단계별로 나누어 5개 양로원의 평균구비율을 백분율로 집계한 결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기기 및 설비의 구비정도가 미비하며, 특히 검수 및 수납단계와 세척 및 소독단계에서 필요한 기기와 설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않아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3. 주생활분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노인들의 일반사항으로서 남자노인은 61.3%인 65명, 여자노인은 38.7%인 41명이었으며, 양로원 거주기간은 5년이하가 79%로 가장 많았다. 과거직업은 여자노인들이 대부분 주부로서 27%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농업-공무원-막노동-상업의 순이었다. 학력은 문맹과 문자해독이 51%로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과거 거주지역은 70%가 대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중'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유무를 조사한 결과 35.8%인 38명이 전혀 친척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32%가 건강하다고 했으나, 그 외에는 각종 질병과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2) 연구대상 양로원의 공간 및 시설실태

(1) 개인공간

침실과 그곳에 부속된 욕실공간으로 구성된 개인공간은 약 13평(490×670 cm)규모에 8인거주 단위로 되어 있었고, 양벽에는 각각 4개씩 수납장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다. 조명은 전체조명으로 4개의 천정등(형광등)이 있고, 그 외의 전원은 없었다. 방문은 여닫이문으로서 문턱이 없었으며, 관리실과의 비상연락을 위해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내는 미색종이 벽지에 갈색모노롬이 깔려 있었으며, 각 침실

<표 20> 주방의 기기 및 시설 구비율

기기 및 시설	구비율(%)
주 방	42.4
검수 단계	20.0
저장 단계	40.0
전처리 단계	55.0
조리 단계	66.7
급식 단계	55.0
세척 및 소독 단계	17.5
식 당	80.0

에는 개인용 수납장 이외에 공동정리장, 신발장, 선풍기, T.V., 벽시계, 거울, 달력, 온습도계, 쓰레기통, 청소용구 등이 각각 1개씩 비치되어 있었다.

각 침실에 부속된 욕실의 규모는 170×195 cm로서, 변기, 세면대와 샤워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샤워공간밑에는 별도의 하수구와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다. 환기는 창문의 개폐로 조절하고 있었으며, 조명은 천정중앙부에 백열등을 1개 설치해 놓았고, 벽부손잡이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행동에 위험의 우려가 있었다.

(2) 공동공간

수용인원이 60~70명인 다용도실에는 책, 울개, T.V., 테이블, 소파, 의자, 바둑판, 장기판, 책장, 운동기구, 다리미, 재봉틀, 강연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마감의 색조는 녹색과 미색계열의 커텐과 미색 페인트의 벽, 연회색 아스타일의 바닥이었으며, 조명으로 천정등(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식당은 장방형의 6인용 식탁이 25개, 각 식탁에는 8개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벽과 바닥의 마감 처리는 다용도실과 동일하며 식당천정의 일부가 천창으로 되어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목욕탕은 대형욕조 1개, 수도꼭지 6세트(냉온수), 샤워기 3개가 있었고 조명은 천정등(백열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탈의실은 탈의용 플라스틱 바구니 19개, 세면대, 거울, 형광등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동목욕탕과 탈의실 모두 벽은 흰색타일, 바닥은 흰색, 군청색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미끄럼방지를 위한 벽부손잡이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생활여건 공간

공동세탁실에는 세탁대와 걸레빠는 공간이 있고, 수도꼭지 7세트, 대형탈수기 1대, 세탁기 1대가 있었으며, 조명은 천정등(형광등)이 2개 있었다. 바닥마감은 공동목욕탕과 동일하게 되어 있었으며, 세탁물 건조를 위해 옥상에 빨래줄을 매어 놓았다.

3) 연구대상 양로원의 공간 및 시설의 운영과 사용 실태

(1) 개인공간

침실은 탈화생활을 하나, 그외의 공간은 착화생활이었다. 각 실당 8명씩 수용된 노인들의 배치기준은 나이, 문맹—학식정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루 섞이게 하고 있었다.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에 의한 패널히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환기시설 없이 창문의 개폐로 환기 조절을 하며, 청소는 노인들이 직접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앙난방방식, 환기시설, 청소방법 등은 개인공간 뿐만아니라 전체 양로원공간이 동일하였다. 현재 8인인 동거노인수에 대해 56.6%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으며, 현재의 실규모에 6인이 동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희망하였다. 동거노인에 대한 의견으로서 53.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양로원 입주이전의 생활배경차이에서 오는 습관적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지적하였다. 현재 침실은 좌식생활로서 이부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랜 생활습관에 따른 때문인지 66%가 만족하고 있었다. 실내온도 20℃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온도조절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54.7%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나, 여름철이라도 아침·저녁에 (17.9%), 특히 장마철 난방을 희망하는 노인이 24.6%로 나타났다. 저녁 9시 30분 소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등사용에 대해서는 74.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별도의 전원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인수납장 사용에 대해서는 56.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수납장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욕실사용실태를 보면, 세수시 세수대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42.4%), 세면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30.2%, 아예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17%였다. 샤워기의 용도는 샤워가 43.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3.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여름에는 10일에 1번씩 공동목욕탕 사용시에 공급되고 있는 온

수공급에 대해 45.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여름에도 아침·저녁으로(25.5%)또는 저녁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서 살펴 본 난방과 온수공급의 재고가 요구된다.

(2) 공동공간

다용도실은 독서, 서예, 대화 등 노인들의 취미생활, 그리고 교양강좌 등의 여가활동 및 다림질과 재봉틀사용을 포함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남녀공간의 구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여 다용도실의 성별 구분, 목적에 따른 소규모화와 분화 등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은 강당이 따로 없는 관제로 강연회, 오락, 공연 등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배식은 매끼 1회씩 1일 3회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간의 제약상 6인용 테이블에 1실당 거주인 8명씩을 앉게 함에 따라 매우 비좁아서, 대부분이 식탁공간의 협소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식탁당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여 행위적, 심리적으로 부자유하고 답답한 점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층으로 분리된 2개소의 공동목욕탕 및 탈의실은 남녀노인들이 분리·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10일에 한번, 겨울에는 1주일에 한번씩 2개방 노인인 16명이 한 조가 되어 30분씩 목욕하거나, 침실의 부속 욕실의 사용빈도가 높은 아침시간, 온수가 필요없는 여름, 또는 세탁시에 이용되고 있었다. 공동목욕탕에 대해서는 입을욕 못해서(79.2%), 규모가 작아서(43.4%), 옷을 보관할 장이 없어서(37.7%), 목욕시간이 짧아서(34.7%)의 순으로 불만족하고 있었고, 희망사항으로는 옷을 분류·보관할 수 있는 시설(35.8%), 목욕 보조원(32.1%), 목욕도중의 휴식장소(29.2%), 사우나시설(26.4%) 등이 지적되어, 공동목욕탕 및 탈의실공간을 위생공간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생활여건 공간

대부분의 노인(41.5%)이 각 침실의 부속욕실에서 작은 빨래를 하고, 큰 빨래 혹은 손수 빨래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자원봉사대에 의뢰하고 있어서 공동세탁실의 이용빈도는 높지 않았다. 공동세탁건조장에

대해서는 4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세탁후 건조대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24.5%), 남녀공간의 미분리와 도난의 위험(17.9%)이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세탁과 세탁건조장 등과 같은 연결성 공간은 가까이 위치해야 하며, 세탁건조장의 경우는 남녀공간의 분리가 요구된다.

4. 노인심리분야

1) 건강문제

건강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정도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결과, 양로원 노인은 불규칙적으로 (93.7%) 건강진단을 받는데 비해서, 일반노인은 51.2%가 규칙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일반노인이 양로원 노인보다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몸이 아플 때의 실제(현실적) 간병인과 이상적 간병인을 알아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병에 걸렸을 때 실제적인 간병인은 양로원 노인은 양로원 직원이, 일반노인은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간병인으로는 양로원 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자녀”를 들고 있었다.

2) 취미 및 여가활동

취미와 여가활동을 조사해 본 결과 양로원 노인의 12.5%와 일반 노인의 93%가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3) 일반적 기분

평소에 기분이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양로원 노인은 외롭고(18.7%), 답답함(31.3%)에 비해서 일반노인은 즐거운(83.7%)기분이 지배적이었다.

4) 대인관계

노인의 대인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등을 알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양로원 노인은 친구나 동료들과 중립적인 관계(75.0%)를 맺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노인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65%)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깝게 느끼고 의논상대로 지적된 사람은 양로원 노인의 경우 양로원 직원(62.5%), 일반노인은 친구(46.5%)와 배우자(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지각상태

면접당일이 며칠인지, 그리고 기억력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미래전망

일반적 미래계획과 미래전망 그리고 자신의 미래전망 등 미래전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미래계획

미래계획의 유무에 반응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미래계획이 없으며(71.2%), 이러한 경향은 양로원 노인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94.0%).

(2) 일반적 미래전망

일반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69.8%의 일반노인과 50.0%의 양로원 노인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3) 자신의 미래전망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로원 노인은 자신의 미래를 중립적(50.0%)이거나, 비관적(50.0%)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반노인들은 비구체적이지만 낙관적(41.9%)인 미래전망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표 21> 현실적 및 이상적 간병자

시설 구분	현 실 적						이 상 적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전 체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전 체	
간 병 자 별	n	%	n	%	n	%	n	%	n	%	n	%
배 우 자	0	0	18	41.9	18	30.5						
자 녀	4	25.0	21	48.8	25	42.4	12	75.0	38	88.4	50	84.7
직업적간병자	2	12.5	4	9.3	6	10.2	0	0	5	11.6	5	8.5
기 타	10	62.5	0	0	10	17.0	4	25.0	0	0	4	6.8
계	16	100.0	43	100.0	59	100.0	16	100.0	43	100.0	59	100.0

< 표 22 > 자신의 미래전망

시설 구분	양로원 노인		일반 노인		전 체	
	n	%	n	%	n	%
낙관적이면서 구체적	0	0	1	2.3	1	1.7
낙관적이면서 비구체적	0	0	18	41.9	18	30.5
중립적	8	50.0	10	23.3	18	30.5
비관적	8	50.0	14	32.5	22	37.3
계	16	100.0	43	100.0	59	100.0

7)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 본 결과, 양로원 노인의 56.3%가, 그리고 일반노인의 79%가 “운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8) 양로원에 대한 요구조건

이상적인 양로원의 필요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 양로원 노인(75.0%)과 일반노인(81.4%) 모두 복지시설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들고 있었으며, 노동여건 구비와 원만한 대인관계의 장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9) 양로원 생활에서 불편한 점

양로원 노인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로원 생활을 조사한 결과, 시설부족(62.4%), 음식물부족(31.3%)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양로원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건강과 정서상태등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여가활동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로원 노인들이 “시설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들고 있는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양로원의 필요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시설” 구비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대인관계측면에서 양로원 노인은 일반노인과는 달리 친구나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양로원의 직원을 가깝게 느끼는 의논상태로 보고한 것은, 이상적 양로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노인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구나 배우자를 가까운 사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윤진, 1990: 윤진과 조석미, 1980: Lowenthal과 Haven: 1968)의 결과와 일치되는 현상이다.

한편, 양로원 노인과 일반노인 모두가 몸이 아플때

이상적인 간병인으로 “자녀”를 들고 있는 것은 유의할 만한 것이다. 이는 Bengtson과 Blacks(1973)의 결과와 일치되는 현상이다.

미래의 계획을 거의 갖지 않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양로원 노인의 경우나 자신의 미래를 비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한 일반노인의 경우는 고려해야할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동기가 낮은 것(Teahan, 1958: Heckhausen, 1963)과 정서적 불안정(Shybut, 1969)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인들의 태도는, 미래계획이 없으며, 미래를 비관적, 중립적으로 보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 역시 이상적인 양로원의 시설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의생활분야

1) 양로원 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이 의복을 중시하고 특히 여자노인은 입어서 편한 옷을 좋아하여 고무줄 밴드스커트, 스웨터와 같은 품목을 선호한다.

2) 양로원 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의복관심도가 낮고, 수수하고 점잖은 옷을 더 선호하나 일반노인과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하기를 원한다.

3) 양로원 노인은 절대적으로 의복의 수량 및 종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직접 의복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4) 양로원 노인 뿐만아니라 일반노인은 한복도 선호하지만 한복보다 양복을 선호한다.

5) 양로원 노인은 의복관리에 관심이 높고 손수 빨래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여긴다.

6) 노인들은 혼방직물보다는 천연섬유 직물을 더욱 선호하고 장식사로 안뜨기한 편성물과 방한복용 견직물로는 습식 코팅직물을 선호한다. 그외에 노인

을 위한 의복 소재는 방염성, 보온성, 유연성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식생활분야

1) 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평균점수 8.2로 대체로 양호하고 식생활태도는 가치관이 비교적 저차원단계이다. 영양소의 섭취 실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일부영양소는 20%정도 미달이므로 노인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본다.

2) 서울시 소재 양로원 급식소의 시설실태는 42.4%의 극히 저조한 주방시설 구비율을 보인다. 양로원 급식소의 장표활용율은 평균 18%에 불과하고, 영양사의 배치율도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단 한곳에만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주생활분야

1) 양로원 노인들을 대체로 현 시설에 만족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이 양호해서가 아니라 체념과 적응, 그리고 양로원 입소 이전 생활과의 비교에 의한 것이다.

2) 현재 각 침실당 8명 거주는 6명으로 조정하길 원하고 나이와 학력, 건강상태, 과거 생활배경에 따른 배치 기준의 재조정을 원한다.

3) 수납공간의 구성과 규모에 불만이 많아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 소유물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관 및 사용에 편리한 디자인을 원한다.

4) 욕실공간이 사용인원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시설물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5) 다용도실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성별·목적에 따른 소규모화, 개별화를 원한다.

6) 식당이 협소하여 사용인원에 알맞는 적정규모

의 확보를 원한다.

7) 공동목욕탕에서는 입욕을 원하며, 목욕중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8) 세탁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간으로의 전환을 원하며, 세탁건조장과 세탁장과의 거리를 가깝게, 그리고 세탁건조장은 남·녀의 구분을 원한다.

4. 노인심리분야

1) 양로원 노인은 규칙적인 건강진단을 원한다.

2) 이상적인 간병인은 “자녀”이어야 한다.

3) 양로원 노인에게는 취미와 여가활동이 없다.

4) 양로원 노인의 일반적 정서상태는 외로움이다.

5) 양로원 노인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며 가까운 의논 대상도 없다.

6) 양로원 노인은 미래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인 편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및 모델을 제시한다.

1. 의생활분야

1) 노인의복 마케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의복 마케트를 위해서는 편안함, 색상, 유행, 기능성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양로원 의생활 관리 지침으로 피복비의 증가, 공용세탁기 설치 및 손세탁용 편의시설, 세제 및 세탁보조제의 제공을 원한다. (<모델 1> 참조)

2. 식생활분야

1) 노인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및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를 통한 활발한 대책과 제도 수립이 시급하다.

<모델 1> 노인의 선호 및 기능성을 고려한 의생활 모델

<p>노인의복 마케트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락감 추구(편안한 디자인 및 쾌적한 의복 소재) ·기능성 추구(방한복 및 다양한 의복 품목 개발) ·유행성 고려 ·안전성 고려(방염성 부여) ·고급화 및 다양화(색상, 소재등)

<p>의생활 관리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비의 증가 · 기계 세탁기 설치 · 손세탁을 위한 편의시설 · 세제 및 세탁보조제(표백제, 유연제)의 제공 · 자동 드라이클리닝기계 설치
--

<모델 2> 한국의 영양관장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군별 구성양의 예

(남자 65세 이상)

구분	식품명	식품 수	중량(g)	섭취 회수	식품명	중량(g)	에너지 (Kcal)	지질(g)	단백질(g)	칼슘(mg)	비타민 A(RE)	B ₁ (mg)	B ₂ (mg)	C(mg)
1	고기 또는 생선	80	2회 이상	쇠고기	80	101	2.96	16	15	15	3.6	0.10	0.50	—
	알류	50	1회 이상	달걀	50	90	6.0	6.2	32	139.4	—	0.05	0.15	0
	콩류(두부)	15(70)	1회 이상	콩	15	61.5	2.67	6.2	19.1	—	—	0.09	0.03	0
	된장	15	1회 이상	된장	15	20.7	0.61	1.8	18.3	0	0	0.005	0.03	0
2	우유 및 유제품	180(23)	1회 이상	우유	180	115	6.12	5.4	334.8	65.5	0.50	0.18	0	0
	뼈째먹는 생선	10	1회 이상	멸치	10	33.6	3.0	6.78	130.8	2.7	0.01	0.009	0	0
				소계	149	149	9.12	12.2	466	68.2	0.51	0.2	0	0
				소계	50	12	0.2	1.25	37	250	0.075	0.15	22.5	3
3	녹황색 채소	75	3회 이상	쪽각	50	12	0.125	0.5	10.75	303	—	0.025	0.025	0.025
	담색 채소 (김치 포함)	150	3회 이상	무우	25	8	0.025	0.5	15.5	—	0.005	0.01	0.01	11
				콩나물	25	9.5	0.25	1.05	8	5.3	0.04	0.035	0.04	4
				배추김치	100	18.6	0.6	2	28	39.8	0.034	0.06	0.06	12
4	과일	150	1회 이상	사과	150	78	0.75	4.5	19.5	1.35	0.03	0.03	0.06	9
				소계	136.1	136.1	1.95	9.8	118.75	599.5	0.209	0.34	0.34	6.15
				쌀	135	463.5	1.75	8.75	32.5	—	0.135	0.065	—	—
				보리	30	99.6	0.6	3.09	12	—	0.12	0.03	0.03	0
5	유지류 (잡곡 포함)	265	3회 이상	밀가루	100	354	1.4	11.2	46	—	0.28	0.07	—	—
				감자	115	82.8	0.58	2.76	5.75	0	0.184	0.287	—	—
				소계	999.9	999.9	4.33	25.8	96.25	0	0.719	0.452	0	0
				종실유	20	180	20	0	0	0	0	0	0	0
6	계소금	3	조미료로	버터	10	72.3	8.1	0.02	1	—	0.007	0	0	0
				계소금	3	22.68	1.7	0.54	3.67	—	0.02	0.004	—	—
				소계	275	275	29.8	0.6	5	0	0.03	0.004	0	0
				총계	1833.2	1833.2	57.44	78.7	770	810	1.713	1.71	1.71	61.5
권장량과 대비			1900	45	70	600	700	1.3	1.5	55				
			96.4	127.6	112.4									
			(%)											

<모델 3>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군별 구성양의 예

(65세 이상 여자)

군별	식품명	중량(g)	섭취회수	식품명	중량(g)	에너지(Kcal)	지질(g)	단백질(g)	칼슘(mg)	비타민 A(RE)	B ₁ (mg)	B ₂ (mg)	C(mg)
1	고기 또는 생선 일류 콩류(두부) 된장	70	2회 이상	쇠고기	70	88.4	3	14	13	3.15	0.09	0.44	—
		50	1회 이상	달걀	50	90	6.0	6.2	32	139.4	0.05	0.15	0
		5	1회 이상	콩	5	20.5	0.9	2.07	6.37	—	0.03	0.01	—
		20	1회 이상	된장	20	27.6	0.8	2.4	24.4	0	0.007	0.04	0
				소계	226.5	10.7	24.77	75.77	142.5	0.177	0.64	—	
2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180	1회 이상	우유	180	115	6.12	5.4	334.8	65.6	0.50	0.18	0
		10	1회 이상	멸치	10	33.6	0.7	6.78	130.8	2.7	0.01	0.009	0
3	녹황색 채소 담색 채소	65	3회 이상	숙각	50	12	0.17	1.25	37	250	0.075	0.15	22.5
		130	3회 이상	당근	15	6	0	0.75	6.45	181.8	0.015	0.015	1.8
				무	25	8	0.05	0.5	15.5	—	0.005	0.01	11
				콩나물	25	9.5	0.25	1.05	8	5.3	0.04	0.035	4
				배추김치	80	15.2	0.43	1.6	22.4	31.8	0.03	0.05	9.6
				사과	130	67.6	0.65	0.39	16.9	1.17	0.026	0.052	7.8
		소계		118.8	1.55	5.54	106.25	470.1	0.191	0.412	56.7		
4	곡류	225	3회 이상	쌀	135	463.5	0.54	8.75	32.5	—	0.135	0.065	—
				보리	30	99.6	0.6	3.09	12	—	0.12	0.03	0
				밀가루	60	212.5	0.84	6.75	33.12	—	0.20	0.06	—
				감자	95	68.4	0.48	2.28	4.75	0	0.152	0.24	—
		소계		844	2.46	20.87	82.37	0	0.607	0.395	0		
5	유지류	30	조미료로	종실유	20	180	20	0	0	0	0	0	0
		3		버터	10	72.3	8.14	0.02	1	—	0.007	0	0
	깨소금			깨소금	3	22.68	1.7	0.54	3.67	—	0.02	0.004	—
			소계	275	29.8	0.56	4.67	—	0.027	0.004	—		
				총계	1612	1612	51.3	63.9	734.7	680.8	1.51	1.54	113.4
				권장량과 대비	1600	1600	40	60					
				(%)	100.75	128.25	106.25						

<모델 4> 수용인원 200인의 양로원 급식시설을 위한 주방의 기본 시설 모델

생 산 과 정	기 본 시 설
검 수 단 계	작업대, 저울, 운반차
저 장 단 계	건조 창고 시설, 선반, 냉장/냉동실, 냉장/냉동고
전 처 리 단 계	2조 싱크대, 작업대, 선반, peeler slicer, cutter, mixer
조 리 단 계	Rice cooker, reach-in refrigerator, steam cooker, Steam-jacketed kettle, ranges/oven, griddle, braising pan hood, 환풍기, 소화기
급 식 단 계	배선대, 식기저장고, steam table, cold table
세척 및 소독단계	3조 싱크대, 소독기, garbage disposal
기 타	Hand washing sink

2) 노인을 위한 양로원 및 공공시설의 증대 및 영양사 고용의 확대로 균형식사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자택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을 위하여 적절한 유료 및 무료 식사배달과 영양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3) 노인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단작성이 용이하도록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따른 노인의 식품구성량을 <모델 2, 3>에 제시한다.

4) 노인의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바른 식습관의 형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사지침을 영양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5) 양로원 급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방의 기본시설 모델 및 필수적인 기록체계의 모델을 <모델 4, 5>에 제시하였다.

6) 급식 관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지침을 제시한다.

① 효과적인 자원관리(장표의 적절한 사용, 재무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정보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② 급식관리 기술의 개발(표준화된 조리법, 직무기술서, 품질표준, 원가분석, 작업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술의 개발)

③ 급식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급식대상자, 종업원, 공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도력, 효과적

<모델 5> 양로원의 효과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기록체계의 모델

관 리 분 야	장 표 류
식 단 관 리	종합 식단표, 급식 일지
영 양 관 리	영양 분석표
구 매 관 리	구매명세서, 물품청구서, 주문서, 납품서, 검수일지
저 장 및 재고관리	영구재고 조사표, 실사재고조사표
생 산 관 리	표준화된 레시피
직 업 관 리	직무기술서, 작업계획표
위 생 관 리	검식일지, 위생점검표
재 무 관 리	원가분석표, 에너지 사용 월보, 예산, 손익계산서

인 의사결정 능력, 제반 관리능력 및 창의력 등의 개발)

3. 주생활분야

1) 양로원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거주 노인의 신체 특성과 심리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통한 물리적 시설기준 확립이 요구된다.

2) 양로원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양로원에 거주한다는 의식을 보다 적게 가질수 있도록 가족적인 분위기로의 운영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양로원의 공간·시설 및 운영체계의 기준을 <모델 6>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4. 노인심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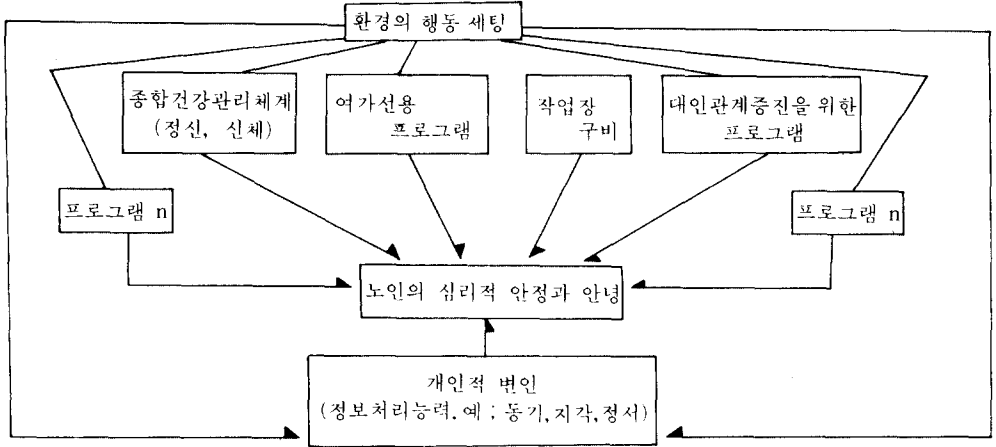
1) 구체적으로 각종 복지시설, 곧 종합 건강관리 체계(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포함), 영양있는 급식, 정기적 검진과 치료,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및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양로원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환경-심리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델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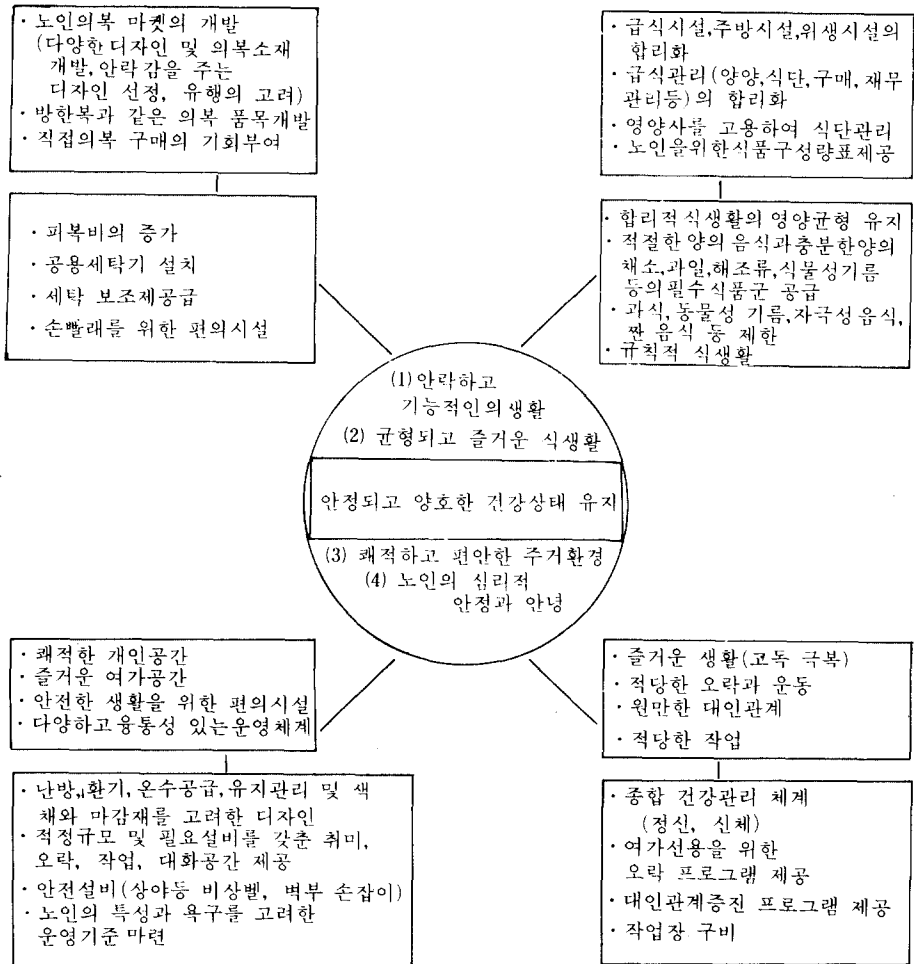
이상 네분야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모델을 다음 <모델 8, 9>와 같이 제시한다.

<모델 6> 양로원 공간·시설 및 운영체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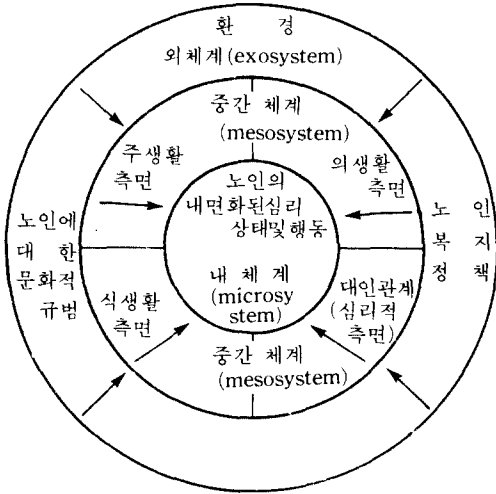
공간	기준	공 간 및 시 설	운 영 체 계	공 통 사 항
개인공간	침실 및 수납공간	바닥난방 창문, 출입문은 작동과 청소가 쉬운 재료와 형태 및 열손실, 소음, 프라이버시 조정을 위한 커튼 설치 개인사용 전원 설치 조명등 스위치는 표시형 스위치 개인물품 보관에 알맞은 수납공간 계획	여름철에도 아침, 저녁 난방 노인들의 방당 배기준은 노인방당 거주인수를 6인으로 조정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폭과 공간을 확보하며 문턱이 없어야 함 미끄럼 방지 표면 처리 바닥차나 요철이 없어야 함 슬러프를 완만하게 함 노인의 안전행위를 위한 벽부손잡이 설치 환기 조절용 시설 설치 중수나 위치 표시, 피난 경로 등은 시각효과가 뛰어난 색채 사용 및 표시 등 설치 전체적으로 양로원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계획
	부속욕실	샤워시설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함 변기 양 옆에 난간 설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상벨 설치 환기시설 세면기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모든 설비는 모난 부분이 없도록 함 손잡이를 치밀하게 계획(벽부, 난간 포함)	여름철에도 아침, 저녁으로 온수 공급	
공동공간	공동목욕탕 및 탈의실	욕조 바닥은 평탄하고 미끄럼지 않게 함 좌욕식으로 하되 입욕시 노인 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함 내수성 있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욕조) 목욕 도중 원수 있는 시설(휴식침대) 설치 옷 보관장 설치 샤우나 시설 설치 손잡이를 치밀하게 계획(출입, 입욕, 기타 동작을 위한)	목욕보조원 배치 용동성 있는 목욕시간 배정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폭과 공간을 확보하며 문턱이 없어야 함 미끄럼 방지 표면 처리 바닥차나 요철이 없어야 함 슬러프를 완만하게 함 노인의 안전행위를 위한 벽부손잡이 설치 환기 조절용 시설 설치 중수나 위치 표시, 피난 경로 등은 시각효과가 뛰어난 색채 사용 및 표시 등 설치 전체적으로 양로원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계획
	식 당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온화한 색채 및 마감재 사용 식탁과 의자, 식탁과 식탁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	배식시간에 시간차를 둠	
	다용도실	단일공간내에서 상이한 특성의 행위유형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도록 취미, 오락 행위, 작업행위를 위한 소규모화 남녀 공간의 분화	다양한 취미생활 프로그램 마련 소일거리 제공	
	통 로	환담 가능한 라운지 공간을 확보하여 안락한 의자시설 의자시설 난간은 손잡이 겸용으로 설치 밤에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 근처에 조명시설		
생활여건 공용공간	공동세탁실 및 건조장	세탁기, 건조기 설치	건조장은 남녀공간으로 분리 세탁실과 건조장의 거리를 가깝게 함	



<모델 7> 양로원의 환경심리 모델



<모델 8> 쾌적한 양로원 생활의 구조적 모델



<모델 9> 양로원의 생태학적 모델

참 고 문 헌

강남이(1986). 서울시내 거주 노인의 영양섭취 실태 및 식생활 태도 조사 연구 : 은퇴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9권, 1회, 52-65면.
 건축자료연구회역(1987). 건축 설계자료 실례집 : 노인의 주거환경. 보원출판사.
 권복순 외 2인(1986). 양로원 현황과 재원자 건강상태에 관한 예비조사. 한국노년학, 6권, 79-99면.
 고애란, 박명기(1981). 노년층 여성의 의복실태 조사연구. 부학, 14호, 22-26면.
 고양숙(1981). 제주지역 고령자 영양실태 기초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41-52면.
 금요섭(1983).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 양로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남희(1986). 대한 급식 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및 급식 관리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경자(1983).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7호, 45-54면.
 김상규(F1983). 노인의 거주 형태. 사회복지연구.
 김선희(1977). 60세 이후 노년층의 식습관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0권, 4호 59-67면.
 김성미(1978). 노인영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16권, 2호, 41-53면.
 김성미(1978). 노인영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II). 한국영양학회지, 11권, 3호, 1-7면.

김혜경, 윤진숙(1989).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의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2권, 3호, 175-184면.
 문수재(1982). An Ecological study of the health status and dietary habits of Korean women in menopause. 박사학위논문,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박명숙(1983). 노년층 여성의 의생활 향상을 위한 디자인 연구. 부학, 16호, 19-23면.
 박천옥(1984). 위생 검열상 조리장의 환경 위생 관리 : 시설·설비·주방내 청소 등 작업과정에서. 국민영양, 7권 9호.
 박태환(1983). 노인집합주거의 계획과 설계 : 호주의 실례중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5호, 50-58면.
 박용환(1982). 양로 시설의 기본 설계. 아산, 동계호.
 보건사회부(1987). 보건사회.
 서순규(1968). 노인병과 영양. 한국영양학회지, 1권.
 서순규(1971). 노인의 우서와 질병. 대한의학협회지, 14권, 273-276.
 서의태, 박태환(1984). 서구의 노인독립주거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20호, 4-10면.
 서의태, 박태환(1985). 서구의 노인 휴에 관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지, 29권, 123호, 5-12면.
 서정숙, 이은화, 모수미(1982).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1권, 1호, 7-14면.
 손숙미, 모수미(1979).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노인의 영양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2권, 4호, 1-10면.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안창수, 김국도, 정복란, 이가옥, 하길용(1987).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이구보건원.
 우미경(1988). 양로원 거주 노인들의 여가공간 이용 행태에 관한 사례연구 : 서울 시립양로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유경숙(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윤종주(1989).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 추이 및 전망. 한국노년학 8호.
 윤진(1980). 노년기의 성격 및 적응 특성과 노인 복지. 사회복지, 여름 호, 58-74면.
 윤진, 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호, 75-85면.
 이기열, 이양자, 김숙영, 박계숙(1980). 대학생의 영양 실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권, 2호, 73-80면.
 인영근, 김영희(1981).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단체급식소에 대한 영양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4

- 권, 1호.
- 임숙자, 권영남(1986).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연구: 대구시 여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권, 2호, 37-50면.
- 임영배, 최영배(1979). 양로원의 건축 계획에 대하여: 전남지구 양로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3권, 86호.
- 장승옥(1982). 한국 노년층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영진(1983). 노인의 속성적 의식에 따른 양로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정무 장관실(1989). 노인문제 종합 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 조영숙, 임현숙(1986). 일부지역노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권, 5호, 315-322면.
- 지순, 윤복자외 4인(1986). 노후생활 주택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노후 생활에 대한 주의식과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호.
- 천종희, 신명화(1988).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권, 1호, 12-22면.
- 한국갤럽 조사연구소(1984).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 한국노년학회(1989). 한국노년학.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3). 한국의 시설부양 노인 실태 조사: 중간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제4차 개정판. 고문사.
- Bengtson, L.L., & Black, K.D. (1973).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In P. Blates & K.W. Sch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otwinick, J., (1979). *Aging and Behavior* (2nd. ed.), New York, Springer.
- Botwinick, J., & Storandt, M. (1974). Vocabulary Ability in later Lif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303-308.
- Eblig, M., & Rosencranz, M.L. (1961).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6.
- Geon, E.A. (1961). *A housing for the elderly-new trends in Europe*. New York & London: Garland STPM Press.
- Horridage, P.E. & Smathers, D.G. (1978-1979). The effect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9, 3, 273-278.
- Jarvik, L.F. (1976). Aging and Depression: Some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Gerontology*, 31, 324-326.
- Kosnik, W., Wimslow, L., Klive, D., Rasinski, K., & Sekuler, R. (1989). Visual changes in daily life throughout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4, 23-24.
- Kotschevar, L.H. & Tarrel, M.E. (1985). Foodservice planning: Layout and equipment.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ckhausen, H. (1963). *Hoffnung und furcht in der leistungsmotivation*. Meisenheim a. Glam.
- Hoffman, A.M. (1979). *Clothing for the handicapped: The aged and other people with special needs*. Charles C. Thomas Publish.
- Hurlock, E.B. (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fa Mcgraw Hill Publishing Co.
- Lowenthal, M.F., & Chriboga, D. (1973). Social stress and adaptation: toward a life-course perspective. In C. Eisdorfer & M. M. Lawton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wenthal, M.F. & Haven, C. (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
- Maher, P.M., & Sontag, M.S. (1986). *Insulative clothing for older women functioning at reduced household temperature*, Research Report,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ichigan State Univ.
- Moran, S.M. (1976). Clothing for special ne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 Nutr. Re. (1983). Clinical nutrition, nutritional status of a healthy middle class elderly population, 1. 5.
- Park, M.F.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toda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 Patterson, C.A. (1983-1984). Selected body measurements of woman aged sixty-five and olde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 Pelcovitis, J. (1972). Nutrition to meet the human needs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American*

- Dietetic Association, 60.
- Phipp, C.A. (1977). Clothing design for handicapped elderly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9.
- Pyke, M. et al. (1947). Nutritional value of diets eaten by old people in London. *Lancet*, 2.
- Phyllis, J.B. et al. (1977). Dietary people,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71k.
- Richard, M.L. (1981). The clothing preference and problem of elderly female consumers. *The Gerontologist*, 21, 3.
- Rosencranz, M.L. (1972). *Clothing Concepts*. Macmillan.
- Robert P.C., et al. (1981). Nutrient intake adiposity, plasma total cholesterol and blood pressure of rural participants in the (vermont) nutrition program for older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34.
- Shybut, J. (3969). Time perspective,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 Sims L.S. (1976). Demographic and attitudinal correlates of nutrition knowledge,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8.
- Simpson, M.M. & Littrell, M.A. (1984). Attitudes toward clothing of elderly me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2.
- Taylor R. G. & Doku H.C. (1963). Dental survey of health older persons,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67.
- Teahan, J.E. (1958). Future time perspective, optimism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